

외환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구조변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양 현 봉*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금융, 기업부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도 경쟁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한 반면,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 활발한 구조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벤처 붐과 함께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부각되고, 이는 결국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함과 아울러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중소기업 구조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분석된 중소기업 구조변화의 특징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진전, 구조변화 과정에서 소기업의 역할 증대, 하도급거래 비중의 확대, 재무구조의 건전화, R&D 투자 증대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수출기반 강화 및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들 수 있다.

21세기 기술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기술지식집약형 벤처창업 활성화, 기술개발 및 정보화 역량 강화, 수요 중심의 인력 지원 시책 추진, 수출기반 및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 추세를 반영한 정책자금 운용방식의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외환위기, 중소기업, 구조변화, 중소기업정책

I. 서 론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 기업구조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 동안 한계기업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했던 반면, 신규 창업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벤처붐과 함께 기술·지식집약형 벤처기업이 부각되고, 이는 결국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함과 아울러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 전화: 02-3299-3171, e-mail: hbyang@kiet.re.kr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나라의 수출산업 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구조도 새롭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그 동안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어왔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재무구조가 건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전개되어온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시장구조·수출구조·재무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도출함과 아울러, 향후 우리 나라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분석

1. 산업구조의 변화

1) 중소기업의 규모별 구조변화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중소제조업의 규모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3~2000년 기간동안 종업원 수 5~19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음에 비해, 종업원 수 20~49인, 50~99인, 100~299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각 부문에서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997~2000년 기간에는 우리 경제가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 전체의 사업체 수 및 종업원 수는 각각 6,055개사, 9만 3,000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사업체 수, 종업원 수의 절대 수치 및 중소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1997년 이후 종업원 수 5~49인의 소기업에서 신규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기간동안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 형태로 창업되는 신설법인 수(제조업 부문)의 경우 1999년 8,114개에서 2000년에는 9,999개, 2001년에는 1만 9개사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 확인 업체수의 경우는 1998년 2,042개에서 1999년에는 4,934개로 2배 이상 증가

<표 1> 중소기업업의 규모별 비중 변화(1993~2000)

단위 : 개, 천명, 10억원, %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1993	1997	2000	1993	1997	2000	1993	1997	2000
5~19인	61,349 (69.7)	67,501 (73.9)	71,960 (73.9)	580 (29.2)	598 (32.1)	645 (32.9)	11,315 (20.7)	18,628 (22.1)	24,669 (22.4)
20~49인	18,189 (20.7)	16,197 (17.8)	17,566 (18.0)	553 (27.8)	491 (26.2)	531 (27.0)	13,028 (23.9)	19,460 (23.1)	25,517 (23.2)
50~99인	5,438 (6.2)	4,856 (5.3)	5,142 (5.3)	372 (18.7)	332 (17.7)	355 (18.1)	11,044 (20.3)	16,729 (19.9)	21,657 (19.7)
100~299인	2,957 (3.4)	2,770 (3.0)	2,711 (2.8)	482 (24.3)	449 (24.0)	432 (22.0)	19,161 (35.1)	29,331 (34.9)	38,308 (34.7)
합 계	87,933 (100.0)	91,324 (100.0)	97,379 (100.0)	1,987 (100.0)	1,870 (100.0)	1,963 (100.0)	54,548 (100.0)	84,148 (100.0)	110,151 (100.0)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주 : () 내는 중소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별 비중임

하였고, 2000년에는 8,798개, 2001년에는 1만 1,392개사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조변화

이제 1993~2000년 기간동안 우리 나라 중소기업업의 산업별 구조변화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섬유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 가죽·가방·신발, 가구 및 기타 제품 등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제조업 전체 = 100)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중화학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3~2000년 기간동안 57.3%에서 62.0%로 증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1990년대에 걸쳐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의 구조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제조업 전체의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조정 속도가 제조업 전체(특히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소기업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부가가치 기준)

단위 : %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1993(A)	2000(B)	B-A	1993(C)	2000(D)	D-C
<경공업>						
음식료품	10.1	11.0	0.9	8.1	7.2	-0.9
담배	0.2	0.3	0.1	2.0	1.1	-0.9
섬유제품	9.7	8.2	-1.5	7.1	5.0	-2.1
봉제의복 및 모피	5.1	3.4	-1.7	3.5	2.0	-1.5
가죽, 가방, 신발	3.2	1.7	-1.5	2.1	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1.7	1.0	-0.7	1.0	0.6	-0.4
인쇄출판, 기록매체복제	3.3	3.2	-0.1	2.9	2.6	-0.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4	6.1	0.7	3.9	4.0	0.1
가구 및 기타 제품	3.9	2.8	-1.1	2.7	1.7	-1.0
재생용 가공원료	0.1	0.3	0.2	0.0	0.1	0.1
소 계	42.7	38.0	-4.7	33.3	25.3	-8.0
<중화학공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0.3	0.4	0.1	3.0	2.6	-0.4
화합물 및 화학제품	9.5	11.2	1.7	9.9	9.5	-0.4
비금속광물제품	7.6	5.1	-2.5	5.6	3.8	-1.8
제1차금속	4.5	4.4	-0.1	6.9	6.3	-0.6
조립금속제품	7.0	7.3	0.3	4.7	4.1	-0.6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10.7	10.9	0.2	7.9	8.0	0.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8	1.1	0.3	0.9	3.3	2.4
기타 전기기계	3.7	5.1	1.4	3.2	3.7	0.5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3.6	5.5	1.9	10.5	17.0	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1.6	2.0	0.4	1.1	1.1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4.0	4.9	0.9	7.8	9.4	1.6
기타 운송장비	0.8	1.1	0.3	2.9	3.7	0.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2	3.0	-0.2	2.3	2.2	-0.1
소 계	57.3	62.0	4.7	66.7	74.7	8.0
전 체	100.0	100.0	0.0	100.0	100.0	0.0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4, 2001

우선 경공업 전체로 볼 경우, 1993~2000년 기간동안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8.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소 경공업의 경우는 4.7% 포인트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더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식료품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의 산업구조는 같은 기간 0.9% 포인트 감소를 보인 반면, 중소 음식료품업의 경우는 오히려 0.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부품·영상·음향·통비장비 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9%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음에 비해, 동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는 이보다 훨씬 높은 6.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기술·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대기업에 비해 그만큼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구조의 변화

1) 제품의 생산·판매 구조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주된 판매형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주문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해온 반면, 계획생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93년의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에 의해 생산·판매하는 비중이 72.5%(수출 19.2%, 내수 53.3%)였으나, 1997년에는 그 비중이 90.6%, 2000년에는 85.6%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에는 경기침체와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수출에 의한 판매비중이 21.6%로 1997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중소기업의 생산형태별 판매 비중의 변화

단위 : %

	주문생산 판매						A+B	계획생산 판매	합 계
	수출(A)			내수(B)					
		OEM·부품 납품	자기 상표		OEM·부품 납품	자기 상표			
1993	19.2	-	-	53.3	-	-	72.5	27.5	100.0
1997	16.6	10.2	6.4	74.0	50.8	23.2	90.6	9.4	100.0
2000	21.6	13.3	8.3	64.0	35.7	28.3	85.6	14.4	10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주문생산 판매방식 중에서도 OEM이나 부품납품에 의한 판매 비중은 1997년 61.0%에서 2000년에는 49.0%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모기업 등으로부터의 주문에 의한 생산·판매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자기브랜드에 의한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하도급 거래구조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은 대규모 조립업체와의 하도급거래 확대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제조업체 중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직접 생산하거나 재하청 주어 납품하는 수급기업의 비중이 1993년 57.8%에서 1997년에는 57.6%, 2000년에는 66.4%로 상승하는 등 1997년 이후에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에서의 수급기업 비중이 중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규모기업의 하도급 의존도가 중기업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수급기업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운송장비, 영상·음향·통신장비 산업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에도 하도급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T화의 진전과, 조립대기업들이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 분업구조를 기존의 폐쇄적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로 전환해 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 연도별 하도급 거래비율 변화추이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체	57.8	48.9	57.4	66.9	57.6	66.0	67.1	66.4
소기업	57.7	48.9	58.3	67.1	57.7	65.8	67.3	66.4
중기업	57.8	48.4	50.2	65.6	55.3	69.0	65.7	65.6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3. 재무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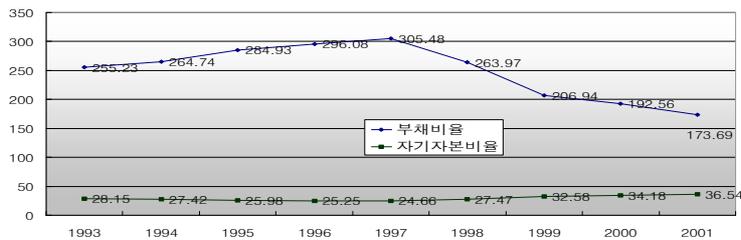
그 동안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안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1993년 255.23%에

서 1997년에는 305.48%까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은행 등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사태(1998년 사상 최대치인 22,828개)에 직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은 IMF와의 양해각서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줄어들기 시작(1997년 305.48% → 1998년 263.97% → 2001년 173.69%)하여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은 1997년 이후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1993년 28.15%에서 1997년에는 24.66%, 2001년에는 그 비중이 36.5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참조).

이상에서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설비투자 냉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차입자금 수요 감소,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상환요구 등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2000년말 현재 192.56%로 대기업(224.6%)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일본 기업(193.2%, 1996년)과는 유사하나, 미국 기업(164.4%, 1999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에 있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그림 1>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변화 추이(단위 : %)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표 5> 중소기업 재무구조 관련 지표의 한일미간 비교(제조업 부문)

단위 : %

	한 국		일본	미국
	중소기업	대기업		
자기자본비율				
1993	28.15	26.8	32.0	36.4
1997	24.66	20.4	34.9	39.4
2000	34.18	30.8	36.5*	37.8*
부 채 비 율				
1993	255.23	273.5	212.8	174.5
1997	305.48	390.0	193.2**	153.9
2000	192.56	224.6	-	164.4*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각 연도

주 : · 한국의 중소기업 통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를, 대기업 통계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함. 그 이유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기업을 모집단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중소기업 전체의 재무구조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표시는 1999년, **는 1996년 통계임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이처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기술개발 및 인력수급구조의 변화

1) 기술개발구조의 변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21세기 기술·지식집약형 산업구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1993년 5,645개사에서 1997년 6,911개사, 2000년에는 1만 748개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제조업체 수 대비 기술개발투자 업체수의 비중이 1993년 7.7%에서 2000년에는 12.0%로 확대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도 기술경쟁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실감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

<표 6> 중소기업의 R&D 관련 지표의 변동 추이

단위 : 개, %

	1993	1997	2000
기술개발투자업체 수	5,645	6,911	10,748
전체 중소기업 대비 기술개발투자업체 비율(%)	7.7	8.0	12.0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	0.42	0.30 (1.56)	0.47 (1.47)
기술개발투자 업체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	1.77	1.32*	1.37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수	1,113	2,278	6,307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주 : () 내는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임

*는 1998년 통계자료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1993년 0.42%에서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0.30%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R&D 투자비율이 0.47%로 증가하였다. 기술개발 투자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1993년 1.77%에서 1998년에는 1.32%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그 비율이 1.37%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00년도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율은 대기업 평균(1.47%)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1993년 1,113개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199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278개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한 6,307개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체제가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인력수급구조의 변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온 중소기업의 월평균 종업원 수는 1993년 185만명에서 1997년 183만명, 2000년에는 17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들의 자동화 투자 확대에 따른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의 감소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의 고용이 감소한 데

<표 7>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추이

단위 : 명, %

	1993	1997	2000
월평균 상시 종업원수(명)	1,852,667	1,831,517	1,782,909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명)	-	21.3	19.9
상시 종업원 부족률(%)	13.2	3.3	6.7
생산직 인력 부족률(%)	15.2 (15.1)	3.6 (6.6)	7.8 (10.6)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주 : () 내는 기술인력 부족률 통계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소기업체들은 자동화 추세에 따른 종업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술·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의 선호, 3D 기피 현상 등과 함께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부족률은 1997년 3.3%에서 2000년에는 6.7%(2002년의 경우 9.36%)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인력 부족률은 1997년 6.6%에서 2000년에는 10.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소기업 인력수급구조의 변화는 향후 산업구조가 기술·지식집약적인 구조로 전환되고, 금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생산성의 변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그 동안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업원수)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소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993~2000년 기간동안 그 증가율이 평균 13.26%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3년 11.59%에서 1997년에는 7.38%로 떨어졌으나, 1999년 이후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그 증가율이 13.26%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00년의 경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표 8> 중소기업의 생산성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단위 : %, 천원

	1993	1997	1998	1999	2000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11.59	7.38	1.26	13.33	13.26
총자본투자효율	31.32	30.72	28.20	29.84	31.61
부가가치율	28.98	28.94	26.41	27.01	26.08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	44,991	51,837	53,077	56,116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 (대기업=100)	-	38.4	38.7	34.7	35.4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각 연도

5,612만원으로 대기업의 35.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생산성을 의미하는 중소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은 1993년 31.32%에서 1997년에는 30.72%로 하락하였으나, 1998년 이후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그 비율이 31.61%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 대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이 16.60%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의 자본투자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은 1993년 28.98%에서 1997년에는 28.94%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26.08%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기업(2000년의 경우 19.23%)보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6. 수출구조의 변화

중소기업은 1990년대에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이룩해 오면서 우리 나라의 수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전체 수출액 1,323억 달러 중 중소기업의 수출(410억 달러) 비중이 31.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635억 달러로 우리 나라 전체 수출액의 36.9%, 2001년에는 전체 수출(1,504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646억 달러) 비중이 42.9%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1998년 68.9%에서 2000년에는 63.0%, 그리고 2001년에는 그 비중이 57.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

<표 9>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비중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전 체
1998년	41,033 (31.0)	91,093 (68.9)	187 (0.1)	132,313 (100.0)
1999년	49,045 (34.1)	94,346 (65.7)	294 (0.20)	143,685 (100.0)
2000년	63,510 (36.9)	108,627 (63.0)	131 (0.1)	172,268 (100.0)
2001년	64,600 (42.9)	85,738 (57.0)	101 (0.1)	150,439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1998년의 경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에서 경공업제품의 비중이 35.3%, 중공업제품의 비중은 60.6%로 나타났다. 세부 제품별로는 전자 및 전기제품이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섬유류(23.5%),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34.6%로 다소 줄어든 반면, 중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61.9%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로는 여전히 전자 및 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섬유류(22.7%),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출구조의 변화추이로 볼 때,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공업 부문보다는 기술·지식집약적인 중공업 부문에서 수출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중소기업 구조변화의 특징

1.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진전

산업구조고도화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술·자본집약적인 성장산업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1993~2000년 기간동안 이루어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는 노동집

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3~2000년 기간 동안 우리 나라의 중소제조업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섬유제품, 봉제의복, 가죽·가방·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인쇄출판, 가구 및 기타 제품 등의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술·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기계,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자동차, 운송장비, 조립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당히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전개되어온 중소기업의 구조변화가 결국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변화 과정에서 소기업의 역할 증대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증가하면서 종업원 수 50인 이상 중기업의 비중은 저하되어 왔음에 반해, 소기업은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오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소기업들이 1990년대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기술·지식집약형 업종으로의 활발한 신규 창업을 통해 산업조정 과정에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은 신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중요성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기술·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시켜 나감에 있어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하도급거래 비중의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는 자동차, 전자, 기계 산업 등 중공업의 비중 증대와 함께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하도급 거래구조가 기존의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네트워크형 구조로 바뀌면서 하도급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 또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하도급 거래구조의 변화 및 하도급거래 비중의 증대는 그 유형과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변화추세로 볼

때, 대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판매처 다변화를 통한 경영안정(특정 모기업의 부도 등에 따른 매출 급감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재무구조의 건전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2000년 현재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192.56%에 이르러 일본기업(193.2%, 1996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24.66%에서 2000년에는 34.18%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이 해소되고, 정책자금에의 의존도 또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기능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 추세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R&D 투자 증대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진전과 함께 기술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우리 나라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체 중 기술개발투자 실시 업체 수가 1993년 5,645개사에서 1997년 6,911개사, 2000년에는 1만 748개사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 제조업체 대비 기술개발투자 업체수의 비중 또한 1993년 7.7%에서 2000년에는 12.0%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도 21세기 기술경쟁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률(2000년도 10.6%)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6.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그 동안 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해오면서 노동 및 자본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경우 1997년 7.38%에서 2000년에는 13.26%로, 자본생산성은 1997년 30.72%에서 2000년에는 31.61%로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1993~2000년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의 경우 기술·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자본생산성의 경우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상대 노동생산성이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7. 수출기반 강화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은 그 동안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리 나라의 수출기반 강화 및 수출구조 고도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1998년 31.0%에서 2001년에는 42.9%로 증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류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기·전자제품 등 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비중이 증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의 역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정책적 시사점

1. 기술지식집약형 벤처 창업 활성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선도자이면서 동시에 후발자라는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도자로서 중소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식집약형 벤처 창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본방향은 시장의 자생력이 마련될 수 있는 창업인프라 및 기술기반의 확충과 공장용지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1998년 이후 대폭 확충된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방 확대 등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 촉진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관련 자금 및 조세지원 확대, 외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정보화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히 기업 내부에서 이용 가능한 인력 및 자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지원기관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 기술 거래 및 이전 활성화를 위한 시장기능 정비, 중소기업형 산·학·연 협력모델 개발 및 확산, 실효성 있는 KOSBIR 사업 추진, 그리고 중소기업의 e-biz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중소기업 인력 지원시책 강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 증대와 함께 잠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 바 있으나,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다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향후 산업구조의 지식·기술집약화가 진전되고, 주 5

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공급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요 중심의 중장기 산업기술·기능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정비,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정규모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중소기업의 정확한 인력수급실태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인력통계 정비 등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및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개미군단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도 국내에서의 생산·판매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활로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수출전략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및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수출과 관련한 인력·해외시장정보 등 각종 경영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세계로 뻗어가는 ‘수출개미군단’ 육성을 위해 내수 중심형 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 수록 업체 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촉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능을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One-roof화를 통한 해외 현지에서의 일괄지원체계 구축,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했다하더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안정적·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양적 확대를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 의한 기업가정신의 발로와, 대규모 조립업체와의 하도급 거래관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하도급거래구조가 수직적·폐쇄적 형태에서 수평적·개방적·네트워크형 체제로 바뀌면서 하도급거래에 참여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도 중소기업의 판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정부조달시스템의 전면자동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강화(특히 국방물자조달에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제도(PL : Product Liability)에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PL 분쟁 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6.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방식 개선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그 동안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의 경우 11개 중앙부처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가 6조 257억원(여기에 신용보증, 어음 및 수출보험 기금에의 출연금을 합하면 총 7조 1,125억원)에 이르고 있다. 동 자금의 지원용도는 82.3%가 시설 및 운전자금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개발(13.1%), 투자조합 출자(4.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시설 및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해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제Ⅱ장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

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동안 운용해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과거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했을 당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원의 중점을 두어왔던 운전 및 시설자금 위주에서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및 훈련, 기술개발, 기술집약형 창업 활성화, 국제화, 장기설비자금 공급 등에 지원의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산업연구원, 「2010년 산업발전 비전」, 2001.
- 산업연구원,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2001.
- 산업연구원,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2000.
- 산업연구원,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종합대책」, 1997.
- 산업연구원, 「IMF 긴급자금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1997.
- 양현봉·주현,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8.
- 양현봉 외, 「하도급거래 구조변화 분석과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1996.
- 양현봉 외, 「중소기업정책의 장기비전 및 과제」, 산업연구원, 1995.
- 양현봉 외,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 조영삼·양현봉 외,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산업연구원, 1996.
-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각 연도.
-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각 연도.
- 조영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기 재정지원 방향」, 「KIET 산업경제」, pp.36~52, 2002. 7.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법령집」, 2001.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02.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 20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인력수급원활화를 위한 종합대책」, 2001.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 「중소기업백서 2000」, 200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현황」, 2002.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Abstract>

**The Restructuring of small business and Policy Suggestions
- A Before and After Comparative Study of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

Hyun-Bong Ya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dramatic structural changes in almost every field including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1997. At the same time, the Korean SME sector also underwent vivid restructuring, enduring the massive bankruptcy of non-viable or undercapitalized SMEs and the remarkably activated establishment of venture startups. In particular, as the venture boom continued, technology and knowledge-intensive SMEs surfaced, raising the expectation that they would accelerate the Korean economy's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provide new vitality to the Korean industrial sector.

This study analyzes changes SMEs have experienced in their industrial structure, market segment, export structure, and financial structure, etc. Based on this, this research draws distinctive points that highlight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Korean SMEs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Korean SME policies.